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겨울비가 내리는 날에 양립동 길을 걷는다. 높다란 아파트 벽을 보다가 낮은 담장을 보면 걷는 길이 좋다.

양립동 호랑가시나무 동산에서 게스트하우스에 전시된 양나희 작가의 전시를 보았다.

여러 작품 중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별빛 아래 있는 마을에 엄마 집이 보인다. 이 고개만 넘으면 집으로 간다.

양나희 작가는 골판지를 이용해 밑 배경을 만들고 그 위에 채색을 더한다. 골판지는 택배 상자에서 찾을 수 있다.

사용된 후면 버려진다. 그 버려진

존재는 쓸모없는 것이다.

양조룡 미술사가에 의하면 "쓸모 없는 것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그것에 있다.

며칠 후면 명절이 다가온다. 쓸모 있는 자식, 쓸모없던 자식이라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난다.

특히 타향살이하는 자식은 부모님의 그리움은 배다. 고향 갈 가방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부모님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큰데 몸은 한걸음 뒤로 물러선다. 가족이 있는 집은 기쁨과 상처가 공존하는 곳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자식이 없이 그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지만 자식의 입장은 집에 대한 생각

집으로 가는 길

과 깊이가 다르다.

집으로 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 살다가 자신을 보여주지 않을 때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 집으로 가는 골목에서 서성거린다. 밤새 달과 함께 어두운 밤을 지새운다.

달과 함께 한 밤이 많다는 것은 삶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상처 난 삶이 있다면 별빛을 찾아가는 경험을 쌓아보자.

'집으로 가는 길' 작품을 보다가 존재와 부재 경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회고록을 보게 되었다.

엄기용 사진작가의 가난했던 유년 시절에 대한 눈물겨운 고백이 담긴 포토 에세이집이다.

'원망과 그리움으로 점철된 유년의 집은 작가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는 외로운 공간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다가 그리움이 되어버린 시

간을 조우한다.' 글을 보면서 집은 가족 간의 삶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어릴 적 학교 갔다 오면 나를 품어주던 따스한 품속으로 간다. 그러나 몇 번이나 그 집을 배회한 적이 있다. 그날은 시험을 망친 날이다.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는 이제는 회초리 대신 별빛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밤에도 별빛은 집으로 이끈다.

양나희 작가의 작품 앞에서 "엄마" 불러 본다. '집으로 가는 길' 그림속으로 들어가 어둠이 내리는 언덕에서 길을 걷는다. 별빛이 내리는 저녁 무렵 길을 걷는다.

별빛이 아름다운 밤길을 걸어 엄마의 집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엄마의 집은 하늘나라다. 그래도 간다. 걸어간다. 엄마가 있는 집으로 간다.

가자 가자 가자/집으로 가자/명절이다. 엄마를 보러/집으로 가자/명절날 떡국은 새 마음의/상처를 보듬는 날, 가자 가자 가자/집으로 가자/나를 찾으러/집으로 가자. 운동주 시인의 '숲으로 가자'를 집으로 가자로 바꾸어 본다.

별빛이 빛나는 밤에 불빛이 켜져 있는 집으로 가는 길에서 존재와 부재의 경계에서 나를 찾는 집으로 간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내 고향 안전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박남규 /강진소방서 119안전센터장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방문을 망설였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이번 설날만큼은 고향방문을 예정하고 있고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을 위해 설 명절 선물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설 명절에 대비해 다

양한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이 약 18%인 반면 그 사망자 비율은 46%가 주택에서 발생할 만큼 주택화재의 경우 다른 화재에 비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일반 분말용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인명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이다.

화재 초기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 탈출 및 신속한 초기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른 소방 시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인터

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이번 설날만큼은 다른 선물보다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숙박시설 소방안전시설 설치 안전한 여행 보내자



주영 /장흥소방서 소방행정팀장

하는 시설이며, 객실 간 거리가 가깝고, 카펫이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숙박시설의 주요 화재 원인으로서는 전기시설 등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사소한 원인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후한 전기시설, 담배꽂초 투척, 난방기구사용 부주의 등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는 화재들이다.

먼저 관계인은 시설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기·가스·유류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노후화된 난방시설은 수리 및 교체 가 필요하다.

비상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2023년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전국 유명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넘쳐나고, 펜션·휴양림 등 숙박시설 또한 연일 매진행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숙박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

장에 물을 비치하면 안된다. 화재 시 비상구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 이용자도 화재 위험성을 알고 항상 주의해야하며 화기취급이 가능한 곳이 아닌 경우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확실하고 안전한 화재 예방은 바

로 국민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예방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관계자와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과 화기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비롯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과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안전한 여행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지국안내, 상무, 오치, 지사안내, 목포, 순천, 광양,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영광, 완도, 장흥, 신안, 강진, 장성, 무안, 여수, 함평, 영암, 진도, 해남, 광산.